

기업건전성평가에 미치는 내부통제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유길현*, 김대룡**

동국대학교_서울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동국대학교_서울 경영학과 부교수**

An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usefulness of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on Corporate Soundness Assessment

Kil-Hyun Yoo*, Dae-Lyong Kim**

Dept. of Business &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Seoul)*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usiness &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내부통제 취약점 유무가 금융기관의 기업건전성 평가·분류와 유의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형성유인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정보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_금융기관과 거래실적이 있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과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점 비보고기업은 평균적으로 'BBB' 신용등급을 받는데 반하여, 보고기업은 'CCC' 등급을 받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보고기업은 '정상'으로, 보고기업은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정보는 기업이 형성하는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기업에게는 낮은 신용등급의 원인으로, 금융기관에게는 자산부실화 예방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 높은 대출금리 요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가 기업신용평가나 자산건전성 분류 등 기업 건전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에 유의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의의이다.

주제어 :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신용평가, 자산건전성 분류, 취약기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fficient internal control system formation incentives for company and to confirm empirically usefulnes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by analyzing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vulnerabilities of companies related significantly to the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f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Empirical analysis covered KOSPI, KOSDAQ list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with more than 100 billion won of assets which have trading performance with "K" financial institution from 2008 until 2013. Whereas non-internal control vulnerability reporting companies by the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received average credit rating of BBB on average, reporting companies received CCC rating.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on-reporting companies are classified as "normal" and reporting companies are classified as "precautionary loan" when it comes to asset quality classification rating. Therefore, reported information of internal control vulnerability reduced the credibility of the financial data, which causes low credit ratings for companies and suggests financial institutions save additional allowance for asset insolvency prevention and require high interest rates. It is a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that vulnerability reporting of internal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can be used as information significant for the evalu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corporate soundness.

Key Words : Internal Control,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Corporate Credit Rating, Asset Quality Classification, Vulnerable Companies

Received 8 June 2016, Revised 29 July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Dae-Lyong Kim
(Dongguk University(Seoul))
Email: dlkim@dongguk.edu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2000년대 초, 발생한 엔론과 월드컴의 회계부정사건은 투명한 기업정보가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운영되던 시장 중심적 금융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이에 미국 금융당국은 기업의 부적절한 정보제공에 따른 금융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불신과 혼란을 막기 위해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을 제정하였다. 회계개혁법이라고 일컬어지는 SOX의 핵심 내용들 중 하나는, 매년 이루어지는 기업재무보고 및 자료공시에 경영진 스스로 평가한 내부통제제도 형성 및 운영효율성 결과를 첨부하고, 외부감사인을 통하여 내부통제제도 적절성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제시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¹⁾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에 공개되는 재무정보의 투명성 고취를 위해, 내부통제에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하게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직접적인 유용성은 금융시장에 주는 정보효과로 볼 수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취약점이 시장에 공개되는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급격히 저하되어 기업경영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Wilfert(2005)는 기업의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시장에 공개되면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용을 요구하게 하는 등 기업에 부정적인 여건을 만드는 유인이 된다고 주장한다[1]. 같은 맥락에서 Elbannan(2007)는 높은 질의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은 부적절한 내부통제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용으로 용이하게 자본조달을 할 수 있기에, 경쟁력 우위로 인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결론짓고 있다[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기업의 내부통제 취약점 유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유용한 정보이다. 기업대출 등 기업과의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은 기업건전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출전결권 범위, 여신심

사차별화, 금리결정 기준,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이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부실화정도에 따른 적정수준의 총당금 적립에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에 대한 정보는 기업신용평가나 자산건전성 분류 등 기업건전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가 금융기관의 기업건전성 평가·분류와 유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형성유인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내부통제정보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_금융기관과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기업과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에 의해 나타난 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취약점이 보고되는 기업의 평균적 신용등급은 ‘CCC’ 등급인데 반하여, 보고되지 않는 기업은 평균 ‘BBB’ 등급이었다. 자산건전성 분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점 비보고기업은 ‘정상’으로, 보고기업의 경우는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보고되는 경우, 기업재무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낮은 신용평가등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금융자산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당금을 더 적립해야하거나 신규대출 억제, 추가담보 요구, 높은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내부통제 취약점보고 유무가 금융기관에게 유용한 정보임에도 기업의 신용평가나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가 그동안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금융기관만의 배타적 정보로 형성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상호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주된 의의는 기업경영에 있어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기관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제3장에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부터 모형 및 자료구성을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마지막 제5장에는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에 나타난 한계점과

1) 사베인즈-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SOX) 제302조 ‘재무보고에 대한 법인책임’과 제404조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평가’ 조항

추후 연구방향을 모색해 본다.

2. 선행연구

기업신용평가나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가 시장에 공개 되지 않고 있기에 금융기관의 기업건전성 평가에 미치는 내부통제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관련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대출채권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를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기업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이나 신용평가 결과가 기업이나 시장에 주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위준복·김문태(2006)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부터 적절한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보였다[3]. 오희장(2005)은 신용정보 이용자의 반응을 연구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상위의 신용등급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익조정의 규모가 클수록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4]. 반면 조연우·박연희(2006)의 연구에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경우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KIS_신용평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2008년 이후의 연구는 이익지속성이나 과세소득의 차이점 분석 등으로 결정요인의 세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박길영·김문태(2008)는 신용평가기관이 이익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용평가에 임하는지 분석한 결과, 이익지속성이 영업성과에 대한 질적 속성을 담보하여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규모와 외국인 지분참여 비중이 클수록,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신용평점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6]. 권순창 등(2009)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집단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신용평가등급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고,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이익의 질이 감소하는 신호로서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시사하였다[7]. 최근 연구로, 안수경·김광용(2014)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변화가 실물이익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포기하더라도 양(+)의 실물이익 조정 유인을 갖는다고 제시하였다[8]. 김동영 등(2015)은

기업지배구조 정보가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기업내부통제시스템과 재무구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기업성과가 높아지고 신용재무평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9]. 외국의 연구결과들도 우리나라 연구들과 유사한 결론에 도출하고 있다. Ashbaug-Skaife et al.(2006)은 Dechow and Dichev(2002)에서 활용된 발생액의 품질을 재무보고의 투명성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여, 재무보고의 품질과 신용등급 사이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였다[10]. Jorion et al.(2009)에서는 수정된 JONES 모형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과 신용등급간의 상관성분석을 실시하여, 재량적 발생액이 높은 기업의 경우 낮은 신용평가를 받는 부(-)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11].

다음으로, 이익조정이나 시장반응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관련연구를 보면, 김효진과 김정은(2006)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정을 적게 한다는 점을 보이고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12]. 김광호(2007)와 조성기 외(2007)의 연구에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큰 이익조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은 점을 보인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취약기업과 정상기업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인위적인 경영성과 조정의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여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3,14]. 이세철(2008)은 이익의 질적 속성 연구를 통하여,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높고, 유동 발생액의 현금전환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기업들은 발생액의 질이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5]. 김정교 등(2009)은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의 질이 낮으며, 취약점이 개선된 기업은 개선되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확대된 입증감사절차를 통하여도 발견하기 힘든 기업 수준의 취약점이 있는 기업은 특정계정의 취약점이 있는 기업보다 낮은 이익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16]. 강정기·신호영(2011)은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경영자의 의도적인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대되어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을 발견하였다[17]. 선행연구들 중 본 연구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유순미·김현진(2010)은 2006~2008년까지 우리나라 상장 및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의 공시가 KIS_신용등급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8].

3. 연구 설계

3.1 연구가설 및 분석자료

기업의 내부통제 적절성은 기업과 금융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는 유용한 정보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정보는, 기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신뢰성 있는 재무자료의 형성 및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금융기관에게 인식시키는 신호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운용에 관한 취약점의 공개는 Wilfert(2005), Elbannan(2007)의 주장처럼 적절한 내부통제를 운영·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비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의 저하에 따른 높은 자본비용을 금융기관이 요구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1,2]. 강정기·신호영(2011)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으면 의도적인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불신 증대로 높은 자본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 연구가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점보고는 금융기관의 기업건전성 평가·분류에 부정적 정보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1: 내부통제 취약기업은 낮은 기업신용 평가그룹에 속할 것이다.
 - 가설 2: 내부통제 취약기업은 낮은 자산건전성 분류그룹에 속할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자료 구성은 <Table 1>에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기업과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감사보고서에서, 관련 자료는 K_금융기관의 여신시스템과 KIS-Value를 이용하여 수집했다.

<Table 1> Summary of Data

D.V	08	09	10	11	12	13	Sum
Listed Co. (KOSPI+KOSDAQ)	577	589	602	599	595	587	3,549
UnlistedCo. (above 100 billion assets)	301	321	354	397	377	370	2,120
Sum	878	910	956	996	972	957	5,669

3.2 연구모형 및 주요변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는 K_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신용 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등급을, 설명변수로는 주요검증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 보고여부를 비롯한 기업 특성변수들을 이용하였다. <Table 2>에는 연구모형과 변수정의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Table 2> Research Model and Definition of Variables

Model	Rating Score = $\alpha_0 + \alpha_1$ Vulnerability Reporting + α_2 Auditor + α_3 Assets Size + α_4 Cash Flow for Operation + α_5 Deft Ratio + α_6 Profit Rate of Net Sales + α_7 Growth rate of Sales + α_8 ROE + ϵ		
D.V	Variables Identifier	Expected	Definition of Variables
A	Corporate Credit Rating (CCR)		According to the Credit Rating, assign 1-10 points respectively from AAA to D
	Asset Soundness Rating (ASR)		According to Classified Assets Quality, assign 1-6 points respectively from normal to estimated loss
B	Vulnerability Reporting (VR)	(+)	Vulnerability Reported "1", Not Reported "0"
	Auditor (AD)	(+)	Big 4 Auditor = "0" Except Big 4 Auditor = "1"
	Assets Size (AS)	(-)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Cash Flow for Operation (CFO)	(-)	Operating Cash Flow ≥ 0 "1", or < 0 "0"
	The Deft Ratio (TDR)	(+)	= Deft / Equity
	Profit Rate of Net Sales (PRNS)	(-)	= Operating Income / Sales
	Growth rate of Sales (GRS)	(+)	= Sales Gain / Sales
	ROE (ROE)	(-)	= Net Profit / (Beginning Net Worth + Final Net Worth)/2

Notes: A: Subordination variable, B: Explanatory Variables.

3.2.1 종속변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기업의 자산건전성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과 연체 및 부도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업 신용은 채무이행능력을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되고 있다.

3.2.1.1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1999년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작하게 되었다.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의 자산건전성은 최우수인 ‘정상’부터 ‘조경보’,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정손실’ 등 6단계로 구분된다. 분류 결과는 부실채권 대손상각, 신용리스크 관리, 대손충당금적립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BIS자기자본 비율산정에도 이용된다.

<Table 3>은 분석자료에 나타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_금융기관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장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결과를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Table 3> Asset Quality Ratings

Rate	Listed Co. (KOSPI & KOSDAQ)							Unlisted Co. (above 100billion assets)						
	08	09	10	11	12	13	Sum	08	09	10	11	12	13	Sum
1	559	563	565	551	534	530	3302	284	302	333	369	346	336	1970
2	5	7	7	9	6	9	43	5	4	2	4	3	4	22
3	8	8	13	10	16	13	68	8	6	8	5	3	3	33
4	1	8	11	9	12	11	52	2	4	3	3	8	6	26
5	1	2	2	3	3	4	15	2	2	3	2	3	3	15
6	3	1	4	17	24	20	69	0	3	5	14	14	18	54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um	577	589	602	599	595	587	3549	301	321	354	397	377	370	2120

Notes: 1: Normal, 2: Early Warning, 3: Precautionary, 4: Fixed Loans, 5: Doubtful, 6: Estimated Loss, 7: Undifferentiated.

3.2.1.2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채무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등급화 하여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와 신용리스크 측정, 한도관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재무등급평가²⁾와 비재무등급평가³⁾로 구성된다.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는 KIS_신용평가와는 비재무적인 평가부문에서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KIS_신용평가의 경우 부실예측모형과 재무점점모형을 결합하여 산출하는데 비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는 안전성, 수익성, 현금흐름 등 재무적인 요소와 대표이사의 경영능력 등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Table 4>는 금융기관과 KIS_신용등급 정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Table 4> Credit Rating Definition of KIS and Financial Institutions

Rating	Financial Institutions			KIS_Crediting Rating			
	Degree of Risk	Financial Stability	Ability to repay the debt	Rating	Mood y's	S&P	Ability to repay the Loan
AAA	Practically none	extremely strong	extremely strong	1	Aaa	AAA	extremely strong
AA	Rare	very good	very strong	2	Aa1, Aa2	AA+, AA	very strong
A	A little bit	good	strong	3	Aa3	AA-	strong
BBB	Average	average	good	4	A1, A2	A+, A	good
BB	above average	less instability	adequate	5	A3	A-	adequate
B	Tolerable	more instability	less vulnerable	6	Baa1, Baa2	BBB+, BBB	less vulnerable
CCC	Worrisome	vulnerable	more vulnerable	7	Baa3	BBB-	more vulnerable
CC	Tangible	highly-vulnerable	vulnerable	8	Ba, B, Caa	B, C, CCC	vulnerable
C	extremely vulnerable	default	extremely-vulnerable	9	Ca	C	highly-vulnerable
				10	C	D	extremely-vulnerable

3.2.2 설명변수

3.2.2.1 내부통제 취약점 보고 유무

우리나라는 내부통제제도의 하나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총자산 1,000억 원 이상의 비상장법인은 회

- 2) 재무등급평가는 외감기업의 경우 수익가치, 순 타인자본/유형자산, 유동부채/매출액, 현금흐름/유동부채, 청산가치를 지표에 의해 평가하고, 비외감기업의 경우 총자본순이익율, 금융비용/매출액, 비유동자산/차입금비율, 이익잉여금/총자산, 현금비율, 3년 순CF합계/단기차입금비율로 평가한다.
- 3) 비재무등급평가는 산업위험, 시장지위, 운영효율성, 경영관리(경영능력, 재무관리, 계열기업관리), 재무용통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계정보의 진실성 및 정확성 유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대상기업은 사업보고서에 CEO 및 CFO의 인증을 전제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Table 5>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9건의 취약점보고 건수 중, 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한 검토의견 거절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는 신현걸(2007)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인의 감사가 아닌 단순한 검토 의견 불임을 하도록 규정한 결과로 인식될 수 있다[19].

<Table 5> Review Comments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D.V	Note	No.
A	Reject of review Comments	99
B	No preparation for the control procedures for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policies	13
C	No preparation for the control on the protection of the procedures and providing assets collateral	6
D	Insolvency, council and the audit committee	1
E	lack of job description	2
F	No preparation of receivables control procedures	2
G	No preparation of inventory control procedures	2
H	Disobedience of the law	1
I	Rewriting previous financial statements	3
Total		129

Note: From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ART" (2008~2013)

본 실증분석에서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검토의견 표명거절⁴⁾을 포함하여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했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취약점의 공시유무는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점이나 자산건전성 분류평점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3.2.2.2 통제변수

연구모형의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들에서 기업신용

평점이나 자산건전성 분류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제시된 재무변수들이다. 기업의 신용평점이나 자산건전성 분류평점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기대부호와 정의는 앞선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 외부감사인: 위준복·김문태(2006)는 감사의견이 기업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3]. 또한 기업의 관리회계담당자의 내부통제자로의 역할 수준은 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의 이용이나 기업 성과와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20]. 따라서 금융기관의 기업평가가 Big4 대형회계법인과 제휴된 외부감사인제도 구성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변수이다.
- 자산규모: Watts & Zimmerman(1986)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증가하여 기업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설정한 변수이다[21].
- 영업활동현금흐름: 윤순석(1998)의 높은 금융비용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인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제도 구축을 위한 재무적 여유가 없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설정한 변수이다[22].
- 부채비율: DeFond and Jambalvo(1994)은 부채계약약속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 직전년도와 해당연도의 비정상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양(+)의 값을 가진다는 점을 보인다[23]. 특히 이머징마켓에 속한 ICT 기업군에서 성장성이 높은 회사는 높은 부채비율이 투자자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에 부채비율이 기업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변수이다.
-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의 수익성 측정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은 금융기관의 기업평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에 설정한 변수이다.
- 매출액증가율: 윤순석·이건열(2001)에 의하면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투자기회의 증가로 인하여 보다 많은 자금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등 기업평가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에 설정한 변수이다[25].
- 자기자본이익률: 이익이 감소한 기업의 내부통제가

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한 검토의견 표명거절과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한 검토의견 표명거절을 포함한다.

취약한 경우,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유인이 발생하
는 등 기업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설
정한 변수이다.

4. 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Table 6>에는 본 실증분석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
의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Average	S.D.	Max.	Min.	Median
CCR	4.00	1.561	10	1	4.00
ASR	1.21	0.887	6	1	1.00
VR	0.02	0.149	1	0	0.00
AD	0.33	0.468	1	0	0.00
AS	26.51	1.447	33.3	20.7	26.23
CFO	0.73	0.447	1	0	1.00
TDR	213.83	470.74	9,881	-1,876	126.33
PRNS	2.77	64.83	1,232.8	-3,585	4.40
GRS	14.51	61.35	1,205	-609	6.90
ROE	2.85	93.31	5,644	-1,278	5.69

주요 특성을 보면, 종속변수로 사용된 기업의 신용평
점과 자산건전성 분류평점은 평균적으로 BBB신용등급
과 자산건전성이 '정상'기업군에 속한다는 점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취약점보고는 약 2%의 기업에

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7>은 주요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적지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특징을 보면, 기업신용평점과 자산건전성 분류평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75.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자산규모, 영업현금흐름, 매출액영업이익
율, 자기자본이익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을 낮출수록 상
대적으로 좋은 신용등급이나 자산건전성 분류등급을 형
성하고 있음을 보인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
보고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업신용평점과 자산건
전성 분류평점, 외부감사인, 부채비율과는 정(+)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어, 신용등급이나 자산건전성 등급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내부통제제도가
취약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자산규모와 영업현금
흐름, 매출액영업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과는 부(-)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영업
활동현금흐름과 매출액영업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이
좋을수록 내부통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의 취약

<Table 7>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D.V	CCR	ASR	VR	AD	AS	CFO	TDR	PRNS	GRS	ROE
CCR	1									
ASR	.753** (.000)	1								
VR	.261** (.000)	.303** (.000)	1							
AD	.166** (.000)	.027* (.040)	.025 (.056)	1						
AS	-.296** (.000)	-.059** (.000)	-.071** (.000)	-.381** (.000)	1					
CFO	-.255** (.000)	-.135** (.000)	-.084** (.000)	-.054** (.000)	.030* (.024)	1				
TDR	.227** (.000)	.209** (.000)	.163** (.000)	.001 (.938)	.036** (.008)	-.086** (.000)	1			
PRNS	-.189** (.000)	-.176** (.000)	-.093** (.000)	-.015 (.264)	.045** (.001)	.080** (.000)	-.044** (.001)	1		
GRS	-.070** (.000)	-.098** (.000)	-.018 (.176)	0.010 (.452)	-.003 (.842)	-.003 (.826)	.005 (.722)	.080** (.000)	1	
ROE	-.100** (.000)	-.065** (.000)	-.028* (.039)	-.030* (.028)	.019 (.164)	.046** (.001)	-.103** (.000)	.028* (.042)	.042** (.002)	1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n Corporate Credit Rating

$$\text{Corporate Credit Rating} = \alpha_0 + \alpha_1 \text{Vulnerability Reporting} + \alpha_2 \text{Auditor} + \alpha_3 \text{Assets Size} + \alpha_4 \text{Cash Flow for Operation} + \alpha_5 \text{Deft Ratio} + \alpha_6 \text{Profit Rate of Net Sales} + \alpha_7 \text{Growth rate of Sales} + \alpha_8 \text{ROE} + \epsilon$$

Variables	Expected Code	Total Companies (n=5,669)	Listed Co.			Unlisted Co. (n=2,120)
			Total (n=3,549)	KOSPI (n=1,962)	KOSDAQ (n=1,587)	
Sectioning		11.676***	11.969***	11.459***	7.390***	12.025***
VR	(+)	1.969***	2.393***	2.059***	2.158***	1.670***
AD	(+)	0.138***	0.080*	0.073	0.108*	0.285***
AS	(-)	-0.279***	-0.296***	-0.282***	-0.115***	-0.299***
CFO	(-)	-0.688***	-0.694***	-0.518***	-0.623***	-0.489***
TDR	(+)	0.001***	0.002***	0.002***	0.002***	0.000***
PRNS	(-)	-0.003***	-0.003***	-0.002***	-0.024***	-0.004***
GRS	(+)	-0.001***	-0.001***	-0.001	0.000	-0.001
ROE	(-)	-0.001***	0.000**	-0.005***	0.000	-0.001*
adj-R ²		0.269	0.358	0.362	0.386	0.242
F- Stat.		247.63***	239.61***	134.96***	122.09***	77.76***

Note: ***, **, * is significant at level 1%, 5%, 10% each (two-tailed test)

점 보고가 금융기관의 기업건전성평가와 유의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금융기관에게 내부통제 정보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점 보고 유무가 기업신용평가나 자산건전성 분류와 유의적인 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VIF)는 1.2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 보고 유무와 금융기관이 형성하는 기업신용평점간의 상호 연관성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주된 검증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보고의 계수는 상장기업이 2.393 (코스피와 코스닥인 경우 각각 2.059, 2.158), 비상장기업이 1.670으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대부호와도 일치하고 있다. 특히 다른 통제변수들 보다 높은 계수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금융기관의 기업 건전성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기업이 취약한 내부통제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낮은 신용평가등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차입이자 비용이 요구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비교해보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공시되는 경우 주식시장 반응 등 기업 활동에

주는 직접적 영향이 크기에 상장기업이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유지해야하는 유인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장사 중, 코스피기업군과 코스닥 기업군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들 대부분은 기대했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산규모, 영업현금흐름, 매출액영업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이 클수록 높은 기업 신용등급을 보이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신용등급을 보이고 있다. 단지 매출액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에서 기대부호가 일치하지 않지만 계수가 거의 0.00으로 나타나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된다.

<Table 9>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보고 유무와 금융기관이 형성하는 자산건전성 분류평점간의 상호 연관성을 위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주된 검증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보고 유무의 계수는 상장기업이 2.016 (코스피와 코스닥인 경우 각각 1.561, 2.026), 비상장기업이 1.272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대부호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 역시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기업이 취약한 내부통제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 낮은 자산건전성 분류 등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즉 내부통제제도에 취약점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보고 되는 경우 금융기관들은 금융자산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충당금을 더 적립하거나 외부적으로는 신규대출 억제, 추가 담보요구, 높은 대출금리 요구의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n Assets Soundness Rating

$$\text{Assets Soundness Rating} = \alpha_0 + \alpha_1 \text{Vulnerability Reporting} + \alpha_2 \text{Auditor} + \alpha_3 \text{Assets Size} + \alpha_4 \text{Cash Flow for Operation} + \alpha_5 \text{Deft Ratio} + \alpha_6 \text{Profit Rate of Net Sales} + \alpha_7 \text{Growth rate of Sales} + \alpha_8 \text{ROE} + \varepsilon$$

Variables	Expected Code	Total Companies (n=5,669)	Listed Co.			Unlisted Co. (n=2,120)
			Total (n=3,549)	KOSPI (n=1,962)	KOSDAQ (n=1,587)	
Sectioning		1.899***	1.952***	1.430***	1.959***	1.993***
VR	(+)	1.565***	2.016***	1.561***	2.026***	1.272***
AD	(+)	-0.023	0.005	-0.067*	0.056	-0.042
AS	(-)	-0.026***	-0.032***	-0.015	-0.033	-0.029*
CFO	(-)	-0.136***	-0.084***	0.008	-0.049	-0.140***
TDR	(+)	0.000***	0.001***	0.001***	0.001***	0.000***
PRNS	(-)	-0.002***	-0.002***	-0.001***	-0.012***	-0.002***
GRS	(+)	-0.001***	-0.001***	-0.001**	-0.001	-0.001***
ROE	(-)	0.000**	0.000	-0.002**	0.000**	0.000
adj-R ²		0.175	0.236	0.274	0.276	0.175
F- Stat.		142.65***	133.50***	89.90***	74.55***	52.00***

Note: ***, **, * is significant at level 1%, 5%, 10% each (two-tailed test)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비교해보면, 기업신용평가와 유사하게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군에 비해 높은 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통제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는 코스피 기업보다 코스닥 기업에서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수들에서는 나타난 점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좋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Big4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인 형성 유무와 매출액증가율은 자산건전성 평점과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4.3 추가 분석

4.3.1 평균차 검증

앞선 회귀분석 결과는 금융기관의 기업건전성 평가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가 부정적 정보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보고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기업(비보고기업군)간의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0>은 평균차에 대한 t-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취약점 보고기업과 비보고기업간의 기업신용평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취약점 비보고기업의 경우 평균 'BBB' 등급을, 보고기업은 평균 'CCC' 등급을 받고 있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평

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점 비보고기업은 대체적으로 '정상'으로, 보고기업의 경우는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가 금융기관에게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유의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0> Results of the Average Difference Test

Variables	No Reported (n:5,540)	Reported (n:129)	Difference	t value
Corporate Credit Rating	3.94	6.67	-2.73	-11.74***
Asset Quality Classification Rating	1.18	2.98	-1.80	-9.21***

4.3.2 강건성 검증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나타난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의 신용평가결과와 내부통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 간의 관계가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1> Deficiency Companies of Internal Control

D.V	Listed Co.(KOSPI & KOSDAQ)							Unlisted Co.(Above 100 billion)						
	08	09	10	11	12	13	Sum	08	09	10	11	12	13	Sum
AA	0	0	0	0	0	0	0	0	1	1	1	1	0	4
A	1	0	0	0	0	1	2	1	3	4	1	1	2	12
BBB	0	0	1	1	2	0	4	0	1	2	3	2	0	8
BB	1	0	1	0	1	2	5	2	2	2	4	2	2	14
B	4	2	2	1	0	0	9	2	0	0	4	3	1	10
CCC	3	1	1	0	0	1	6	2	1	2	1	0	1	7
CC	0	1	1	0	0	0	2	0	0	0	1	2	1	4
C	0	0	0	0	0	0	0	0	0	0	0	1	0	1
D	1	1	2	4	8	6	22	0	0	3	5	6	5	19
Sum	10	5	8	6	11	10	50	7	8	14	20	18	12	79

<Table 12> According to the Categorical Dat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core (0 or 1) = $\alpha_0 + \alpha_1$ Vulnerability Reporting + α_2 Auditor + α_3 Assets Size + α_4 Cash Flow for Operation + α_5 Deft Ratio + α_6 Profit Rate of Net Sales + α_7 Growth rate of Sales + α_8 ROE + ϵ				
Variables	Expected Code	Rating Criteria		Asset Quality Classification Rating Criteria
		Case 1	Case 2	
Sectioning		10.756***	0.015	2.949**
VR	(+)	1.702***	2.520***	2.446***
AD	(+)	0.400***	-0.145	-0.080
AS	(-)	-0.439***	-0.104*	-0.205***
CFO	(-)	-0.901***	-0.781***	-0.878***
TDR	(+)	0.001***	0.001***	0.001***
PRNS	(-)	-0.029***	-0.004***	-0.005***
GRS	(+)	-0.001	-0.009***	-0.006***
ROE	(-)	-0.005***	0.000	-0.002*
χ^2 _Value		1,150.67***	361.89***	416.01***

Note: ***, **, * is significant at level 1%, 5%, 10% each (two-tailed test)

상장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낮은 등급에서, 비상장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보고되고 있다. 상장사의 경우 기업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제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반면,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는 있지만 내부통제제도에 나타나는 정보효과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앞선 분석결과를 보완하여 본 실증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신용평가와 자산건전성 분류평점을 범주형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추가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기업신용의 경우, 신용등급이 'BB'이상 기업군과, 'CCC'이상 기업군으로 2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자산건전성 분류평점의 경우 '정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범주형 자료를 구성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즉, 기업신용평가의 경우, 신용평가가 'AAA'부터 'BB'까지는 '0', 그 이하는 '1'인 경우(Case 1)와, 신용평가가 'AAA'부터 'CCC'까지는 '0', 그 이하는 '1'인 경우(Case 2)로 범주형 자료를 구성하였고, 자산건전성 분류평점의 경우는 '정상' 이면 0, '조기경보', '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이면 1로 구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2>에는 범주형 자료에 따른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기업신용평점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 보고 유무의 계수는 각각 1.702와 2.520으로, 자산건전성 분류의 경우는 2.446으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기대부

호와도 일치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자산평가 등급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은 앞선 분석과 동일한 결과로 회귀분석에 따른 분석결과와 유의성을 나타낸다. 즉, 기업이 취약한 내부통제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 재무보고의 신뢰성 저하로 낮은 신용평가등급과 낮은 자산건전성 분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3.3 KIS_신용평점과의 관계

본 연구와 동일선상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 보고 유무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KIS_신용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유순미, 김현진(2010)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KIS_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적합성 및 금융기관 평가와의 상관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KIS_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3>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KIS_신용평점과의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 보고 유무 계수는 상장기업군과 비상장기업군에서 각각 1.069와 0.828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서 나타난 계수보다는 작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취약점이 보고되는 기업은 KIS_신용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내부통제에 취약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투자

<Table 13>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KIS_Credit Rating

$$\text{KIS Credit Rating} = \alpha_0 + \alpha_1 \text{Vulnerability Reporting} + \alpha_2 \text{Auditor} + \alpha_3 \text{Assets Size} + \alpha_4 \text{Cash Flow for Operation} + \alpha_5 \text{Deft Ratio} + \alpha_6 \text{Profit Rate of Net Sales} + \alpha_7 \text{Growth rate of Sales} + \alpha_8 \text{ROE} + \varepsilon$$

Variables	Expected Code	Listed Co. (KOSPI & KOSDAQ)	Unlisted Co. (Above 100 billion)
Sectioning		6.345***	7.461***
VR	(+)	1.069***	0.828***
AD	(+)	0.048	-1.042***
AS	(-)	-0.001	-0.040
CFO	(-)	-1.200***	-0.004***
TDR	(+)	0.002***	0.001***
PRNS	(-)	0.001	-0.003***
GRS	(+)	-0.001***	0.443***
ROE	(-)	0.006***	-0.004***
F Statistics		190.52***	72.34***

Notes: ***, **, * is significant at the level 1%, 5%, 10% each (two-tailed test)

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신뢰성있는 정보제공을 하지 못해 기업의 미래 채무능력에 대한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나타내는 KIS_신용등급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자산건전성 분류를 통해서 대출금리 결정부터 추가대출여부, 충당금설정, 대출전결권 및 여신심사차별화 등 여신사후관리에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신용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등급을 유지해야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필요시 추가대출 등 금융기관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가 금융기관의 기업건전성 평가 분류와 유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취약한 내부통제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낮은 신용평가등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 부터 높은 차입이자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의 취약점 정보로부터 금융기관들은 자산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충당금을 더 적립하거나 외부적으로는 신규대출을 억제, 추가 담보요구,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유인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의의는 금융기관만의 배타적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형성유인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내부통제정보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에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 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 거래에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기관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 결과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가 시장에 공개되지 않아 K_금융기관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타 금융기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 향후 금융기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금융기관 신용평가등급을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 신용평가등급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은 제기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취약점 보고기업수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감사인의 검토의견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규정에 대한 재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취약비율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 따라 분석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다.

REFERENCES

- [1] Wilfert, G.E, “The first wave of section 404 reporting”, *Orange Country Business Journal* Vol 28, No6, pp.33~64, 2005
- [2] Elbannan, M, A., “Quality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corporate governance and credit ratings”, Working Paper, 2007
- [3] J. B. Wee & M. T. Kim, “The Impact of Auditor Opinion on Corporate Credit Ratings”, *A Study on Accounting and Audit*, Vol 43, pp.93~118, 2006
- [4] H. J. Oh, “The Effects of Earning Management on the Credit Rating”, *Management Research*, Vol. 20, No 1, pp.79~103, 2005
- [5] Y. W. Cho & Y. H. Park,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Outside Director and Audit Quality on Relevance of Earnings Management and KIS Credit Score”, *Accounting Information Research*, Vol. 24, No. 3, pp.141~171, 2006
- [6] K. Y. Park & M. T. Kim, “The Effects of Earnings Quality through Earnings Persistence on Credit Evaluation”,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Vol. 25, pp.71~89, 2008
- [7] S. C. Kwon & Y. O. Kang & C. H. Kim, “The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s and credit rating”, *Industrial Economic Research*, Vol. 23, No. 2, pp.955~974, 2009
- [8] S. K. An & K. Y. Kim, “Relationship of Earnings and Credit Rating before and after IF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pp.99~112, 2014
- [9] D. Y. Kim & D. I. Kim & B. W. Seo, “A Study on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Information on Credit Financial rat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105~113, 2015
- [10] Ashbaugh-Skaife, H., D. Collins, R. LaFond, “The Effect Corporate Governance On Firm’s Credit Ra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42, pp. 203~243, 2006
- [11] Jorion, P., C. Shi, and S. Zhang, “Tightening Credit Standards : The Role of Accounting Qualit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 14, No 1. pp.123~160, 2009
- [12] H. j. Kim & J. E. Kim, “The Impac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on Earnings Management”, *KICA Research*, Vol. 54, pp.176~204, 2006
- [13] K. H. Kim,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y on Earnings Management”, *SungSil University, A Doctoral Dissertation*, 2007
- [14] S. K. Cho & T. W. Kwak & J. H. Kim, “The Effec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on the Discretionary Accruals”, *Chungnam University Includes Accounting*, Vol. 8, No. 1, pp.85~103, 2007
- [15] S. C. Lee, “Material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Earing Attributes”, *HanYang University, A Doctoral Dissertation*, 2008
- [16] J. K. Kim & S. M. Yoo & H. J. Kim, “Internal Control Weakness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Accruals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Vol. 18, No. 4, pp.33~64, 2009
- [17] K. K. Kang & H. Y. Sin, “Material Weaknesses in IACs and the Cost of Capital”, *Accounting Information Research*, Vol. 29, No. 1, pp.211~230, 2011
- [18] S. M. Yoo & H. J. Kim, “The impact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over Financial Reporting on Credit Ra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Vol. 30, pp.155~178, 2010
- [19] H. K. Sin, “Analysis of Review Reports on Internal Control Systems”, *Journal of Accounting*, Vol. 16, No. 1, pp.107~128, 2007
- [20] W. J. Son, “The Empirical Study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Strategy, MCS, Corporate’s Performance and Role of Controll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303~314, 2015
- [21] Watts, R. and J. Zimmerman,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1986
- [22] S. S. Yoon, “A Study on the phenomenon of profit control on operating cash flow”, *Research in accounting*, Vol. 23, No. 4, pp.107~126, 1998
- [23] DeFond, M, and J. Jimbalvo,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January, Vol. 16, No. 1,

pp.145~176, 1994

- [24] M. L. Chon, "Investment and Debt ratio of ICT firm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1, pp.103~108, 2015
- [25] S. S. Yoon & K. Y. Lee, "Interest Adjustment of Paid-in Capital Increase Business", Accounting Research, Vol. 26, No. 4, pp.1~25, 2001

유 길 현(Yoo, Kil Hyun)



- 1989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00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재무회계, 기업금융
- E-Mail : yookh@kdb.co.kr

김 대 룡(Kim, Dae Lyong)



- 1998년 8월 :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2003년 12월 :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기업재무, 금융, 선물옵션
- E-Mail : dlkim@dongguk.edu